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이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박다인 · 김승일* 중앙대학교

The effect of leisure flow on the work durability and performance anxiety of a professional dancer

Park, Da-In · Kim, Seung Il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에 따른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무용수 324명을 유효 표본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무대경력이 적고, 여가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여가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참여기간이 오래 되고, 무대경력이 적을수록, 연령이 높은 그룹일수록 공연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무용수들의 여가몰입은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의 각 하위변인들에 따라 (-)부적, (+)정적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이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xiety and job duration according to the leisure commitment of Korean dance professional dancer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324 dancers' questionnaire. First, leisure activity was higher when the stage career was less and leisure participation period was longer. Second, the longer the leisure participation period, the smaller the stage career, and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performance anxiety. Third,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leisure commitment of dancers resulted in various conclusions with negative and positive influences according to sub - variables of performance anxiety and job persis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c data to study the various influences of leisure commitment of the Korean dance professional dancers on performance anxiety and job durability.

Keywords : leisure flow, work durability, performance anxiety, professional dancer

이 논문은 박다인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tomorrowdain@hanmail.ne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에게 있어서 무대 위 긴장과 불안은 무용수 개인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이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게 있어 무대 위 공연이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무용이라는 예술을 공유하는 장소이며, 이러한 공연활동을 통해 무용수들은 자아의 성취감을 가지게 된다. 직업무용수란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체계적이며 제도화된 조직 안에서 고정적 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신체를 통해 무용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이자, 전문직업인을 의미한다(현보람, 2016).

직업무용수들은 공연을 통해 객석의 관객에게 생생한 무용동작의 기교와 감정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아주 짧은 시간의 공연이라도 실수 없는 완벽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항상 긴장하며 생활하게 된다(2004, 이정수). 무용수의 긴장에는 무대공포, 주변인들의 기대, 고도의 무용기술에 대한 부담, 부상, 동료와의 경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으로는 흔히 육체적 피로, 부상에 관한 통증 컨디션저하, 위장장애, 수면장애, 불면증 등으로 나타나고 인지적으로는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음식의 섭취나 음주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이혁, 2014).

정민(2012)의 논문에서는 무용수들의 심리적 요인인 공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공연불안감도 높아진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 스트레스나 공연불안감의 요인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면 공연에 관한 스트레스와 공연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공연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 이정수(2004)의 논문에서는 유명한 무용수들의 인터뷰결과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무대 위 공연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공연을 하지 않는 시간은 자

신만의 여가활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공연에 관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여가활동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송은일(2010)의 논문에서도 직업무용수에게 있어서도 여가활동은 단순한 재미의 여가활동을 넘어 공연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 여가활동에 몰두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휴식 형 여가활동을 통해 평소 공연에 관한 긴장감을 해소 시키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이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무용수 개개인에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공연불안을 낮추고, 나아가 한국전통무용공연의 보존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연구하였다. 현재 직업무용수의 대한 논문들 중 여가 활동 참여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 몰입과의 관계, 공연불안에 따른 선행연구는 많지만 그에 따른 직무지속성까지 미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무용수의 여가 몰입에 따른 공연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직무지속성까지 연구하는데 그 필요성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몰입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공연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여가몰입과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여가몰입과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국·공립단체

와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총 350부의 설문지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자기평가기입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자료로 판단되는 26부를 제외하여 총 324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자료처리 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인원수	빈도 (%)
성별	남자	67	20.7
	여자	257	79.3
연령	25세 이하	53	16.4
	26세~30세	92	28.4
	31세~35세	71	21.9
	36세~40세	63	19.4
	41세 이상	45	13.9
무용 경력	7년 미만	144	44.4
	7년 이상	180	55.6
무용단 소속형태	정규직	160	49.4
	비정규직	164	50.3
여가 활동 기간	3개월 이하	175	54.0
	4개월~1년 미만	68	21.0
	1년 이상	81	25.0
주당 여가활동 참여일	3일 미만	215	66.4
	3일 이상	109	33.6
생활 수준	높다	45	13.9
	보통	227	70.1
	낮다	20	16.0

2.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연불안, 여가몰입의 세부요인을 통하여 차이를 밝히고 공연불안 하위요인과 여가몰입 하위요인이 직무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공연불안, 여가몰입, 직무지속성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총 문항 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1	7
	연령	1	
	무용경력	1	
	무용단 소속형태	1	
	여가활동 기간	1	
	주당여가활동참여일	1	
	생활수준	1	
공연 불안	실패에 대한 공포	16	32
	시설과 장비에 대한 우려	9	
	기술 부족	7	
여가 몰입	여가 인지 몰입	8	12
	여가 행위 몰입	4	
직무 지속성	현 직무를 지속하려는 의도	4	6
	현 직무를 떠나려는 의도	2	
총 문항 수		57	

3.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편의표본 추출법을 통해 전국을 소재로 하는 한국무용 국·공립단체와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뒤,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자료처리

SPSS ver21.0 program과 AMOS ver 21.0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의 Cronbach's α 값과 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연불안, 여가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MANOVA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인 여가몰입이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몰입 차이분석

1) 연령에 따른 여가몰입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연령에 있어서 여가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들의 연령은 25세 이하,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 이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여가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 수와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몰입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인지몰입 $M=3.800 \sim 3.947$, $SD .551 \sim .630$ 의 범위와 행위몰입 $M=3.466 \sim 3.572$, $SD .587 \sim .763$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연령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인지몰입		행위몰입	
		M	SD	M	SD
25세 이하	53	3.947	0.569	3.472	0.747
26세 ~30세	92	3.880	0.551	3.572	0.696
31세 ~35세	71	3.930	0.630	3.531	0.763
36세 ~40세	63	3.800	0.589	3.466	0.684
41세 이상	45	3.920	0.581	3.541	0.587
합계	324	3.892	0.582	3.522	0.701

2) 연령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MANOVA 결과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연령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 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e	Eta2	Power
인지몰입	.988	.619	4/319	.649	.008	.203
행위몰입	($p=.870$)	.298	4/319	.879	.004	.116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성된 여가몰입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88, 유의확률 .87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연령 특성에 따라 여가 몰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연령에 따라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몰입($F=.619$, $p>.05$)과 행위몰입($F=.298$, $p>.05$)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무대경력에 따른 여가 몰입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에 있어서 여가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의 무대경력에는 7년 미만, 7년 이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여가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 수와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무대경력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인지몰입		행위몰입	
		M	SD	M	SD
7년 미만	144	3.975	0.562	3.625	0.672
7년 이상	180	3.826	0.590	3.439	0.714
합계	324	3.892	0.582	3.522	0.7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몰입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인지몰입 $M=3.826 \sim 3.975$, $SD .562 \sim .590$ 의 범위와 행위몰입 $M=3.437 \sim 3.625$, $SD .672 \sim .714$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에 무대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무대경력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	Eta2	Power
인지몰입	.975	5.347	1/322	.021	.016	.635
행위몰입 (p=.017)		5.725	1/322	.017	.017	.665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성된 여가몰입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75, 유의확률 .017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 특성에 따라 여가 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무대 경력에 따라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몰입 ($F=5.347$, $p<.05$)과 행위몰입($F=5.725$, $p<.05$)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무용단원 형태에 따른 여가 몰입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용단원 형태에 있어서 여가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들의 무용단원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여가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용단원 형태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 수와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는 <표 7>과 같다.

표 7. 무용단원 형태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인지몰입		행위몰입	
		M	SD	M	SD
정규직	160	3.886	0.613	3.506	0.730
비정규직	164	3.898	0.553	3.530	0.669
합계	324	3.892	0.582	3.522	0.7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몰입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인지몰입 $M=3.886 \sim 3.898$, $SD .553 \sim .613$ 의 범위와 행위몰입 $M=3.506 \sim 3.530$, $SD .669 \sim .730$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에 무용단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무용단원 형태에 따른 여가몰입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e	Eta2	Power
인지몰입	.989	.029	1/322	.971	.000	.054
행위몰입 (p=.493)	1.387	1/322	.251	.009	.297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성된 여가몰입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89, 유의확률 .49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용단원 형태 특성에 따라 여가 몰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무용단원 형태에 따라 여가몰입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몰입($F=.029$, $p>.05$)과 행위몰입($F=1.387$, $p>.05$)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공연불안 차이분석

1) 연령에 따른 공연불안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연령에 있어서 공연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들의 연령은 25세 이하,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 이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공연불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실패공포와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연령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 수와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연령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실패공포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	
		M	SD	M	SD	M	SD
25세 이하	53	3.520	0.683	3.253	0.571	3.439	0.663
26세 ~30세	92	3.685	0.620	3.620	0.650	3.682	0.640
31세 ~35세	71	3.685	0.701	3.623	0.649	3.588	0.658
36세 ~40세	63	3.554	0.615	3.584	0.551	3.464	0.518
41세 이상	45	3.727	0.590	3.698	0.628	3.722	0.589
합계	324	3.638	0.645	3.564	0.628	3.585	0.625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연불안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실패공포 $M=3.520 \sim 3.727$, $SD .590 \sim .701$ 의 범위와 기술부족 $M=3.253 \sim 3.698$, $SD .551 \sim .650$, 시설·장비우려 $M=3.439 \sim 3.722$, $SD .518 \sim .663$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실패공포와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 연령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e	Eta2	Power
실패공포		1.145	4/319	.335	.014	.359
기술부족	.924	4.274	4/319	.002	.051	.927
시설·장비 우려	($p=.014$)	2.457	4/319	.046	.030	.700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공포와 기술부

족으로 구성된 공연불안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24, 유의확률 .014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 무용수들의 연령 특성에 따라 공연불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연령에 따라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부족($F=4.274$, $p<.01$)와 시설·장비우려($F=2.457$, $p<.05$)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연령에 따른 공연불안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기술부족에서 26세~30세 그룹($M=3.620$, $SD=.650$), 31세~35세 그룹($M=3.623$, $SD=.649$), 41세 이상 그룹($M=3.698$, $SD=.628$)이 25세 이하 그룹($M=3.253$, $SD=.571$)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2) 무대경력에 따른 공연불안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에 있어서 공연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들의 무대 경력은 7년 미만, 7년 이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공연불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실패공포와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 수와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무대경력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실패공포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	
		M	SD	M	SD	M	SD
7년 미만	144	3.603	0.697	3.482	0.668	3.519	0.650
7년 이상	180	3.667	0.601	3.630	0.589	3.638	0.600
합계	324	3.638	0.645	3.564	0.628	3.585	0.625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연불안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실패공포 $M=3.603 \sim 3.667$, $SD .601 \sim .697$ 의 범위와 기술부족 $M=3.482 \sim 3.630$, $SD .589 \sim .668$, 시설·장비우려 $M=3.519 \sim 3.638$, $SD .600 \sim .650$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실패공포와 기술부족에 무대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다.

표 12. 무대경력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e	Eta2	Power
실패공포	.983 ($p=.138$)	.781	1/322	.377	.002	.143
기술부족		4.488	1/322	.035	.014	.560
시설·장비우려		2.891	1/322	.090	.009	.396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공포와 기술부족으로 구성된 공연불안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83, 유의확률 .138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무대경력 특성에 따라 공연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무대경력에 따라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부족 ($F=4.488$, $p<.05$)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참여기간에 따른 공연불안 변수들의 차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참여기간에 있어서 공연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용수들의 여가참여기간은 3개월 이하, 4개월~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단계를 범주화 하였고, 공연불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실패공포와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로 설정하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참여기간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여가참여기간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실패공포		기술부족		시설·장비우려	
		M	SD	M	SD	M	SD
3개월 이하	175	3.620	0.607	3.568	0.627	3.523	0.656
4개월~1년 미만	68	3.606	0.754	3.453	0.641	3.522	0.612
1년 이상	81	3.705	0.629	3.649	0.615	3.772	0.528
합계	324	3.638	0.645	3.564	0.628	3.585	0.625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연불안의 하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실패공포 $M=3.606 \sim 3.705$, $SD .607 \sim .754$ 의 범위와 기술부족 $M=3.453 \sim 3.649$, $SD .615 \sim .627$, 시설·장비우려 $M=3.522 \sim 3.772$, $SD .528 \sim .656$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실패공포와 기술부족에 여가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다.

표 14. 여가참여기간에 따른 공연불안요인의 MANOVA 결과

종속변수	Wilks' Lambda	F	df	p-value	Eta2	Power
실패공포	.961 ($p=.047$)	.585	2/321	.558	.004	.147
기술부족		1.822	2/321	.163	.011	.379
시설·장비우려		4.943	2/321	.008	.030	.807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공포와 기술부족으로 구성된 공연불안 점수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 .961, 유의확률 .047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참여기간 특성에 따라 공연불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Wilks의 람다는 총 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Wilks의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여가 참여기간에 따라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우려($F=4.943$, $p<.05$)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연불안, 여가몰입, 직무지속성의 경로분석 결과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에 여가몰입이 공연불안과 직무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AMOS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원인변인과 결과변인들의 관계를 검증과 매개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먼저 인과 관계 검증 전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살펴보면 Q 값(χ^2/df) = 2.012로 나타나 기준치에 충족하며 적합도 지수 $NFI = .933$, $TLI = .947$, $CFI = .965$, $RMR = .030$, $RMSEA = .056$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여가몰입이 공연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 표준화계수는 $-.006$ (t 값 = $-.010$)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992$ 로 유의주준 ($p > .05$)보다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몰입이 직무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 표준화 계수는 $.004$ (t 값 = $.010$)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992$ 로 유의주준 ($p > .05$)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공연불안이 직무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 표준화 계수는 $.032$ (t 값 = $.457$)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648$ 로 유의주준 ($p > .05$)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15. 이론 모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가설경로	표준화계수	SE	t값	P	결과
H1. 여가몰입 $\Rightarrow$ 공연 불안	-.006	.104	-.010	.992	기각
H2. 여가몰입 $\Rightarrow$ 직무지속성	.004	.124	.010	.992	기각
H3. 공연불안 $\Rightarrow$ 직무지속성	.032	.123	.457	.648	기각

$Q(\chi^2/df: 483295/24)=2.012$, $p=.002$, $NFI=.933$, $TLI=.947$, $CFI=.965$, $RMR=.030$ $RMSEA=.056$

4. 여가몰입,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의 회귀분석 결과

1) 여가몰입의 하위변인이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여가몰입 하위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직무지속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지속성을 준거변인으로 선정하고 여가몰입의 하위변인(인지몰입, 행위몰입)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지속성을 예측하는 여가몰입 하위요인은 인지몰입($\beta=-.001$, $t=-.024$, $p>.05$), 행위몰입($\beta=-.007$, $t=-.112$, $p>.05$) 요인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0.2% ($R^2=.002$)로 나타났다.

표 16. 여가몰입이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R^2	F
		B	표준 오차				
직무 지속성	상수	3.287	.336		9.787***		
	인지몰입	-.002	.084	-.001	-.024	.002	.009
	행위몰입	-.008	.070	-.007	-.112		

*** $p<.001$

2) 공연불안의 하위변인이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공연불안 하위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직무지속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지속성을 준거변인으로 선정하고 공연불안 하위변인(실패공포, 기술부족, 시설, 장비우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지속성을 예측하는 공연불안 하위요인은 시설, 장비우려($\beta=.059$, $t=.855$, $p>.05$), 기술부족($\beta=.043$, $t=.580$, $p>.05$), 요인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술부족은($\beta=-.070$, $t=-.945$, $p>.05$)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0.5% ($R^2=.005$)로 나타났다.

표 17. 공연불안이 직무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R ²	F
		B	표준 오차				
직무 지속성	상수	3.099	.314		9.860***		
	실패공포	-.089	.094	-.070	-.945		
	기술부족	.056	.096	.043	.580	.005	.516
	시설, 장비우려	.077	.091	.059	.855		

***p<.001

결론 및 논의

1. 논의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과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에 대한 본 연구는 무용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무용수의 여가몰입과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몰입 차이분석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1년 이상 열심히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3개월 이하의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문동규(2006)의 연구에서 여가참여기간이 길수록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 분석 결과 4개월이상~ 1년미만의 그룹이 3개월이하의 그룹보다 행위몰입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두 그룹의 기간의 차이는 짧게는 1달여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행위몰입에서 차이가 났으며, 인지몰입은 오랜 기간을 투자해야 몰입을 느끼는 반면 행위몰입은 인지몰입보다 행위몰입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공연불안 차이분석

신체를 사용하여 공연에 참여해야하는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에게 신체를 이용하여 고난이도의 기술을 발

휘해야하는 무용기술은 나이가 적을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25세 이전의 그룹이 공연불안의 하위 요인인 기술부족요인에서 가장 불안이 낮게 나온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전문무용수의 은퇴의 주요 요인들 중 체력적 문제로 인하여 은퇴를 생각하는 요인이 가장 높다라는 김수진(2014)의 연구 결과는 본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공연경력에 따른 공연불안이 7년 미만의 그룹이 7년 이상의 그룹보다 기술부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무대에서는 기간이 적을수록 횟수도 적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그룹보다 적은 그룹이 높게 나온 결과로 사료되며, 최하나(2009)의 연구에서 무용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이 낮을수록 무대공연의 불안정도가 높은 결과는 본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의 여가참여기간에 따라 공연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우려가 유의한 차이는 앞서 여가참여기간이 길수록 여가몰입도가 높아진다는 본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문동규(2007)의 연구에서 신체적 자아효능감은 여가 참여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결과를 말해준다. 즉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공연을 본인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스스로의 믿음과 마음을 나타내는 자아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며, 이 점은 본인의 실패와 기술에 대한 공포는 제어가 가능한 반면 예측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의 시설불안 요인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백현(2009)의 논문에서 여가몰입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치와 효능감을 느끼게 하여, 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것은 본연구의 흐름을 뒷받침 한다.

3) 공연불안, 여가몰입, 직무지속성의 경로분석 결과

첫째로,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공연불안을 낮춰준다는 본 연구의 흐름은 대학운동선수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가진다고 말한 유일선(2013)의 논문은 본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로,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커지며 직무지속성이 높아진다는 본연구의 흐름은 조영민(2011)의 연구에서 여가활동참여가 증가될수록 직무환경과 직무

특성의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나이가 여가활동의 수준이 증가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 또한 증가된다는 결론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로, 공연불안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성이 높은 분석흐름은 직업무용수의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공연불안으로 보았을 때, 직무지속성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연불안의 정도가 크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4) 여가몰입, 공연불안, 직무지속성의 회귀분석 결과

첫째, 여가몰입 하위요인 중 직무지속을 예측하는 여가몰입 하위요인은 인지몰입, 행위몰입요인 순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이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 시작했던 여가활동이 많은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을 여가활동을 참여시키게 되었는데 앞서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처럼 여가에 몰입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의 지속성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여가에 관한 몰입이 상당부분 높아져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를 여가활동 분야의 전문인으로 성장하게 만들면서 이직이 생겨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는 함형석, 원영신, 임성철(2016)의 연구에서 MTB(mountain bike)를 여가활동으로 참여하다 MTB와 관련된 곳으로 직무를 전환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한 논문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로, 공연불안 하위요인 중 직무지속을 예측하는 공연불안 하위요인은 시설, 장비우려, 기술부족, 요인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술부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식(2009)의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몰입에 대한 연구로서 본 결과로 분석해보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는 공연에 관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한국무용 직업무용수 개인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기술부족과 시설과 장비의 우려 요인은 얼마든지 본인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현영(2005)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들 중 무용수들의 직무만족으로 '명예'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기 위해 극복해야하는 점은 낮은 임금과 무대 위에서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무용 직업무용수들은 이러한 극복과제를 예술인의 명예를 가지고 극복하며 예술의 길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수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실패적인 요인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내용 및 해석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한국무용수들은 무대경력이 짧고, 여가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여가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업한국무용수들은 여가참여기간이 오래 될수록 공연불안(시설·장비우려)이 높게 나타났고, 공연경력이 짧을수록 공연불안(기술부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공연불안(기술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연불안, 여가몰입, 직무지속의 경로분석 결과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공연불안은 낮고,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성이 높았으며, 공연불안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성이 낮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공연불안, 여가몰입, 직무지속의 회귀분석 결과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이 낮고, 공연불안의 하위요인인 시설·장비, 기술부족 순으로 공연불안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성이 높았으며, 공연불안의 하위요인인 기술부족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지속성이 낮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여 분석된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소수의 계층인 남자무용수의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객관적으로 받아드리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남자직업무용수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몰입과 공연불안은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내어 설문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여가몰입과 공연불안 이외에도 다른 점이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한국무용 직업무용수의 여가몰입과 공연불안에 관한 심층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무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여가몰입과 공연불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무용 직업무용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2008), **여가민족과 여가몰입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2014), **전문무용수의 은퇴환경과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 노정식(2009),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 공연불안 및 공연몰입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문동규(2007),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와 몰입경험, 자아효능감 및 자아실현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백현(2009),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경험과 여가기능, 몰입경험 및 운동지속의사에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송은일(2010), **대학 태권도선수의 여가활동 유형별 몰입, 여가제약 여가민족의 구조 모형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유일선(2013), **대학운동선수의 여가활동유형이 여가민족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수(2004), **여성직업무용수의 여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영(2005), **무용수의 전공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민족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혁(2014), **무용과 스트레스**,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국제심포지엄 발제.
- 함형석, 원영신, 임성철(2016), **두 바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가활동을 통해 관련 직업으로 이직한 MTB 참여자의 삶**,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5(2), pp. 95-110.
- 정민(2011), **직업무용수의 성격 5요인과 공연스트레스 및 공연불안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조성덕(1999), **무용공연 불안원인 및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영민(2011), **민간경비원의 여가활동참여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민족 및 생활민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최하나(2009), **무대공연 시 무대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보람(2016), **직업무용단 무용수의 신뢰연결망 구조와 사회적 자원교환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논문투고일: 2017. 11. 02

논문수정일(1차): 2017. 12. 01

논문수정일(2차): 2017. 12. 26

게재확정일: 2017. 12. 26